

# 웃음 보살 빛등 기사 <16>

구성 : 김흥민



## 자기 허물을 모르는 사람 [백유경(百喻經)]



옛날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안에 앉아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의 흥을 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두 가지 허물이 있다. 성을 잘 내고, 일을 경솔히 하는 것이다." 그때 문 밖에서 이 말을 듣던 그 사람이 성을 내며 방에 들어가 흥보던 이를 움켜잡고 "이 나쁜 사람아" 하며 주먹으로 때렸다. 옆의 사람이 "왜 때리냐"고 물으니 대답하길 "내가 언제 성을 잘 내며 경솔하다고 나를 흥보는가. 그래서 때렸다." 옆사람이 말했다. "네가 성내기를 좋아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지금 바로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런데 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가." 비유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에 취해 거칠고 방탕하다가 남의 꾸지람을 들으면 도리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증거를 끌어와 스스로 깨끗하다고 변명한다. 저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듣기 싫어하여 남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오히려 그를 때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 옛 판화의 세계

### 부처님께서 법의 미래를 설하시다 여래현기(如來懸記)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여래현기(如來懸記) 판.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비단. (단면) 27.2×18.0

불암사판 석씨원류 삼화의 한 장면으로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불법의 미래에 관해 설법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구경>에 이르시길 세존이 열반에 들기에 즈음해 아난에게 말했다. '내가 열반의 세계로 옮겨가서 말법시대가 되면 내 제자들이 부처의 바른 가르침을 버리고 이양을 탐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의 법 가운데서 여러 쓸데없는 논쟁을 하면서 거북하게 몸의 계율과 마음의 지혜를 뒤집고, 다시 분노하고 말다툼하며 남의 것을 빼앗기를 도모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묘하고 좋은 온갖 의복과 방사와 부구(敷具; 방석)들에 빠져 거기에 집착하며 여러 악한 도당들이 함께 서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설사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해도 다시 서로 허물고 욱해 잠깐 사이 모두 계율을 허물고 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천·룡 등 팔부대중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오뇌에 싸여 모두 멀리 떠나게 될 것이고, 대신과 장자들도 삼보가 있는 곳에서 청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 삼보를 능욕하고 가법계 보고 허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정법을 멸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로는 여러 비구들이 악업을 짓는 일이 더욱 깊어질 것이고 대신과 장자들은 더욱 삼보를 공경하지 않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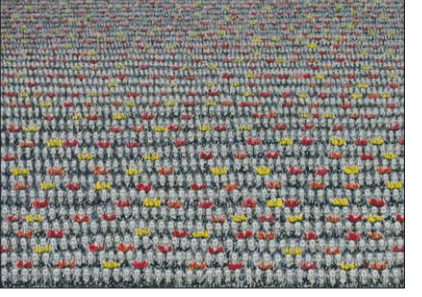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설법하신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 불교 현실과 너무 꼭 맞아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책이 만들어져 유포됐던 몇 백 년 전에도 이 글을 읽고 많은 불자들이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쇠퇴해 가는 불교를 일으키려는 원력의 삶을 실천해 나아가지 않았을까?

부처님은 이런 말법의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법했다.

"그러나 삼보의 여세가 아직은 완전히 멸하지 않은 까닭에 그때 가서 다시 욕심이 적고 단속한 것을 아는 비구가 있어 금계를 호시하며 수행하고 조용히 명상에 잠기면서 많이 듣는 것을 사랑하고 즐기며 부처의 삼장교법을 받아 간직하여 널리 사부대중을 위해 분별해서 설법을 베풀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정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들을 안락하게 한다던 국왕과 대신, 장자, 거사, 선남자, 선여인의 신도들도 정법을 사랑하고 아껴서 삼보가 있는 곳에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해 불법을 찬탄하고 지키고 세워서 뒤돌아보고 못 있어 하는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알지아! 이것은 모두가 불가사의한 모든 보살들의 본지의 원력으로 그 결과가 이때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며, 여래의 위없는 정법을 지켜 모든 유정들에게 크게 풍요한 이익을 주게 된다."

선학스님(명주사교판화박물관장)

## 허허당의 세상만사



■ 法花  
휴유암 뒤뜰 밤나무가지  
평상 위에 몸을 눕히니 가지가지 길이로다  
가지 가지 나는 가지 하늘로 가지 땅으로 가지  
밤나무 하나로 천지를 가지

# 대구 부산

원장 우해안 스님

# 카이로프락틱 교육연수원 개원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전생·빙의·자기치면·치료치면  
카이로프락터 양성

-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크리닉,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 대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마스터,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 기간** • 2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54시간 집약 완성
- 장소** • 부산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태성빌딩 6층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 입학일시** • 2008년 10월 1일 ~ 10월 5일
- 대구공개강좌** • 2008년 10월 4일 ~ 10월 5일(토, 일요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 3동 1553-6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본원 교학과 Tel : 053-632-007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088-4 태성빌딩 6층(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본원 교학과 Tel : 051-746-4026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교육연수원